

訓民正音 이전의 문자 생활

金 完 鎭

(서울大 教授, 國語學)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 생활이라 하면 주로 漢字의 이용을 뜻하게 된다. 漢字 이외에도 산스크리트 문자(=梵字)의 사용이 高僧들 사이의 서찰 등에서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고, 그 역사 또한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을 추측할 수 있겠으나, 不立文字의 전통 때문인지 그 실물에 접할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한글의 5백년 역사에 비하여 漢字의 사용은 그보다 천 년 이상 앞서서 시작되었으며, 비록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 漢字다. 물론 漢字의 宗主國인 中國의 경우에 비교될 수야 없겠지만, 漢字로 기록된 방대한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문화 유산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어학적인 영역에 국한시켜 말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인력의 참여하에 상당한 업적을 쌓아 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 접근 태도에 있어 고식적이며 편협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을 지금의 필자는 이 기회를 빌어 반성해 보고 싶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字形 및 字體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다. 단편적인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조사·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 字劃의 異同을 현미경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字學의 처지를 사람에 따라서는 小學의 小學이라고 貶下할는지 모르나, 거꾸로 말하여 그것은 이른바 차원 높은 다른 관찰의 밑바탕이 될 필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字形이나 字體에 대한 지식은 書誌의 판단이나 解讀 작업의 절대적 기초가 된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혼란한 狂草까지를 脫草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오랜 경험과 은축의 결실인 이 능력도 체계화되고 객관화되어 논저로 공간되지 않는 한, 필경은 그 개인들과 함께 가 버리고, 노력은 새 사람을 기다려 다시 시작되는 수 밖에 없다.

字形에 관계된 요긴한 문제에 조우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간행된 저술을 바탕으로 유추에 의한 해석을 내리는 것일 때가 많다. 우리의 자료에서 직접 귀납된 참고서의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필자 하나만은 아닐 줄 안다.

물론 漢字 字學이 국어학 고유의 한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것이다. 중국어학 전공의 인사로서 그 소임을 맡을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또한 적격일 것이요, 原史料를 많이 대하는 사학도에게서 그 사람울 얻는다 하여도 나쁘지 않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漢學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국어학도가 그 일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한다.

국어사에 관여하는 국어학도가 흔히 말하는 漢字 자료란 借字表記의 자료들이다. 풍성하고 다양했을 漢字의 이용도에 비한다면 현존하는 자료는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한 것일지 모른다. 이 자료적 제약이 사람들을 많이 실망시키는 것이지만, 도합심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족한 신비가 숨쉬고 있는 것이 借字表記의 세계라는 것 또한 틀림 없는 일이다.

功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발 붙일 곳은 아닐지 모른다. 借字表記라는 자료의 벽이 언어 내용 자체의 노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을 때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표기에 담긴 언어의 연구를 제일의로 하는 국어사의 기본 관점에서 보면, 가히 主客이 전도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 고대 국어 연구의 실상은 媒體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는 표기 체계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借字表記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인 透視와 함께 거시적인 조감을 필요로 한다. 字形이나 字音에 대한 성찰이 전자에 속하는 것이라면, 당시의 인근 제민족의 문자 생활에 대한 폭넓은 관찰과 함께 우리의 借字表記 전통을 수립하고 그것을 운영했던 先民들의 漢文 能力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후자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일본의 경우를 대비시키는 것을 본다. 확실히 일본의 문자 생활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借字表記의 연장이라 할 수 있고 우리의 借字表記 전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겠으므로 전존 자료의 양이 비교적 풍성한 일본의 경우를 참작하는 일은 백번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의 북방에 있던 契丹이나 女眞의 경우도, 또 순전한 譯音 자료이지만 몽고의 元朝秘史의 표기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의견상 거란 문자나 여진 문자는 우리의 借字表記와 관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이 漢字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그 운영의 실태가 우리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두 문자 체계는 이른바 大字와 小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大字란 表意字를 이르고 小字는 表音字를 말한다. 大字 또는 小字만으로 된 것도 있지만, 大字에 小字를 받쳐 쓴 경우는 우리의 鄉札 表記, 예컨대 ‘夜音’(밤)에 있어 표의자 ‘夜’에 표음자 ‘音’을 받쳐 쓴 것을 방불케 한다. 실증적인 자료가 알려진 것이 없지만, 契丹文字나 女眞文字의 배경으로 우리의 借字表記 전통과 같은 것이 존재했을 것을 추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협어한 眼目은 종종 무분별한 독단을 낳는다. 가령 ‘菩薩’의 습字로서의 ‘并’을 일본인들이 자기네의 造字, 즉 이른바 國字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할 것이다. 均如傳에 이 글자가 두 번 쓰이고 있는 것을 알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에서의 造字라고 말한다면 일본인들이 범한 오류를 되풀이할 위험이 큰 것이다. 불교 용어의 흐름이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借字表記의 배후에는 정통 漢文에 대한 고도의 이해 능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기 쉽다. 특히 그 발생 과정에 있어 얼마간의 漢字의 지식이 借字表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漢字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뒷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머리에 간직하고 자료를 대해야 한다. 가령 ‘於’字를 ‘늘 어’라고 부르는 바탕에는 漢文에 있어서의 ‘於’字의 여러 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

위 ‘指事之詞’로서의 ‘於’의 용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대격 조사 ‘를’로써 그訓을 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대의 일이지는 하지만, 우리에게 〈初學字訓增輯〉(李植)이나 〈說文解字翼徵〉(朴瑄壽)같은 저술들이 있는 것까지를 우리는 같은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비록 借字表記에 쓰인 漢字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만으로 따로 독립된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요, 漢字一般, 漢文에 쓰인 漢字와 함께 영위된 문자 생활의 일부로서 작게는 字形 字體로부터 크게는 字音 字義 漢文 文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부감하는 視域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